

# 제2차 세계대전과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노동자\*

## - 강제 이주에서 강제 노동으로 -

이 재 원

- |                             |                          |
|-----------------------------|--------------------------|
| I. 머리말                      | IV. 인도차이나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인식 |
| II. 2차 대전과 프랑스 해외영토         | V. 맺음말                   |
| III. '원주민 노동국(MOI)'의 조직과 관리 |                          |

### I. 머리말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노동자 관련 역사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주제였다. 2차대전기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킨 반면, 프랑스에 끌려간 인도차이나 징용노동자들의 운명은 현대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14년, 그리고 1939년에 인도차이나 병사와 노동자들의 징집과 관련한 일시적인 이주운동을 우리는 소홀히 생각할 수 없다. 역사가 질 망스롱(Gilles Manceron)이 언급했듯이 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참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sup>1)</sup>

1939년 10월부터 1940년 6월까지, 9천여 명의 인도차이나인들이 보병으로 프랑스 군대에 징집되었으며, 2만여 명이 프랑스에 징용노동자로 끌려오게 되었다. 이들 중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은 프랑스 식민부, 그리고 국방부와 연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27-A00091).

1) Pierre Daum, *Immigrés de force: les travailleurs indochinois en France, 1939-1952*(Paris: Actes Sud, 2009)의 서문, pp. 11-19.

계된 노동부 산하 ‘원주민 노동국(MOI: Main-d’oeuvre indigène)’<sup>2)</sup>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다. 식민지인들에 대한 모욕과 억압, 학대 행위를 자행했던 원주민 노동국은 식민지에서 사용한 원주민 통치방식과 노동력 활용문제를 그대로 ‘프랑스 본국’에 이식했다.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프랑스 제3공화국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가운데, 대부분이 농촌 출신인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은 1940년 6월 6일 프랑스에 도착한 이후 전쟁 기간 동안 비시(Vichy) 정부와 독일인, 그리고 프랑스 민간기업을 위해 노동을 강요당하며 프랑스에 머물러야 했다. 군단(軍團 Légion)이나 중대(中隊 Compagnie)에 배치되어 엄격한 군대규율의 통제 하에 지내며, 수용소에 감금되어 부족한 식사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가운데 다수가 폐결핵을 앓은 이들은 종종 폭력과 감금의 희생자가 되었다. 전쟁 후 미래의 베트남 국을 건설하기 위한 식민지인들의 독립에의 요구에 직면하여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인도차이나인들 중 14,000여 명을 강제로 추방했다. 프랑스에서 결혼 등의 방식으로 가족을 이룬 천여 명이 넘는 인도차이나인들은 프랑스에 머물 것을 선택했다.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의 강제이주의 역사는 우리들의 기억과 기록 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한 베트남 학자의 논문<sup>3)</sup>이 발표되기 전에 이 주제를 다룬 유일한 연구서가 1946년에 소개되었는데, 저자는 비시정부의 노동부 소속 관료였고, ‘원주민 노동국’ 관리 업무를 담당할 인물이었다. 그는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의 상황을 미화하기에 급급했고, 그의 주장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구술한 기억들과는 차이가 있었다.<sup>4)</sup> 이런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피에르 돔(Pierre Daum)의 저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파리와 마르세유 근교, 그리고 베트

2) 원래 명칭은 ‘원주민, 북아프리카인 그리고 식민지인 노동국(Main d’Oeuvre Indigène, Nord-Africaine et Coloniale)’이지만 줄여서 ‘원주민 노동국(Main d’Oeuvre Indigène)’이라고 일반적으로 명명한다.

3) 1988년 이 주제에 관해 석사논문을 쓴 리엠케루구엔(Liêm-Khê Luguern)은 같은 주제로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박사논문을 썼고, 2007년에 논문으로 발표했다(Liêm-Khê Luguern, “Ni civil ni militaire: le travailleur indochinois inconnu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Le Mouvement social*, nos. 219-220(juillet-septembre 2007). 그녀의 박사논문은 2011년 베트남에서 단행본(Liêm-Khê Luguern, *Travailleurs indochinois requis, parcours 1939-1952*)으로 출간되었다.

4) Gilles Manceron, “Préface” in Daum, *Immigrés de force*, p. 11.

남의 하노이와 여러 지방에 거주하는 과거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노동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연구서이다.<sup>5)</sup>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프랑스 랑그독 루시옹(Languedoc-Roussillon) 지역의 『리베라시옹』(*Libération*)지 특파원, 그리고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지의 공동편집자인 돔은 그의 저서에서 25만 명의 아프리카 출신 식민지 병사를 위한 진혼곡이라 할 수 있는 라시드 부샤렙(Rachid Bouchareb)의 2006년도 영화 <영광의 날들. 원제목은 원주민(Indigènes)>과는 달리 어떤 영화도 인도차이나 노동자들과 병사들의 ‘비극적인 사가’를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생존자들의 기억담을 수집하고 복원한 돔의 책은 대부분이 강제로 이주한 2만여 명의 잊혀진 인도차이나인들의 운명을 망각 속에서 끄집어낸 첫 번째 종합서로 평가된다.

프랑스 대중매체에서도 인도차이나, 더 나아가 식민지 문제는 오랫동안 은폐되었다. 프랑스의 인도차이나전쟁에서의 패배, 식민지 열강의 몰락을 의미하는 수에즈(Suez)에서의 ‘이스라엘-프랑스-영국의 굴복’,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등장 이후 40여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프랑스에서는 알제리전쟁과 인도차이나전쟁에 대한 많은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로트망(Patrick Rotman)과 타베르니에(Bertrand Tavernier)의 <이름없는 전쟁(La guerre sans nom)>, 쉐도르페르(Pierre Schoendoerffer)의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바르니에(Régis Wargnier)의 <인도차이나(Indochine)>와 같은 영화들이 1992년 상반기에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당시, 역사가 스토라(Benjamin Stora)는 “인도차이나의 공산화 이후 모로코와 말레이시아의 풍경과 배경을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인도차이나를 묘사한 후에 이제는 베트남 정부의 승인 하에 베트남 현지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식민지 과거가 한꺼번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결국 식민지 제국의 몰락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sup>6)</sup> 다른 역사가들은 좋았던 옛 시절을 낭만적으로 추억하는, 소위 “식민지적 환상에 빠지려는 생각”을 경계하고 거부했다.<sup>7)</sup> 이들은 ‘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해 다시 숙고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프랑

5) Pierre Daum, *Immigrés de force: les travailleurs indochinois en France, 1939-1952*(Paris: Actes Sud, 2009).

6) Benjamin Stora, “Indochine, Algérie, autorisations de retour”, *Libération*, 30 avril-1<sup>er</sup> mai 1992.

7) Wicem Souissi, “Immigrés de force, les travailleurs indochinois en France(1939-1952)”, *Hommes & migration*, no. 1279(mai-juin 2009), p. 166.

스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지만, 프랑스에게 “그들의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요구한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한 옛 식민지인들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프랑스인들의 작품 뿐 아니라 인도차이나인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차이나 ‘원주민’ 노동자들의 회고에 기반한 다큐멘터리, 〈세 지역의 사람들(Les Hommes des 3 ky<sup>8)</sup>)〉의 저자 주레리에우(Dzù Lê Liêu)는 1993년 촬영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어떠한 반대나 방해도, 검열도 없었다고 밝혔다.<sup>9)</sup> 레후토(Lê Huu Tho)는 이 역사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입장을 다룬 『한 지방관료의 여정』(*Itinéraire d'un petit mandarin*)이라는 저서를 1996년에 라르마탕(L'Harmattan)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1988년에 프랑스에서 발표된 석사논문에서 리엠케루구엔(Liêm-Khê Luguern)은 13년 동안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에게 행한 처우에 대해 최초로 밝혀냈다. 그녀는 옛 징용자들의 증언을 복구하는 작업은 프랑스와 베트남의 역사적 기억 안에서 이 수천 명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데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본 논문은 강제 이주와 강제 노동의 희생양이 된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의 이야기이다. 2차 대전 초기 전선으로 파견된 프랑스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마르세유 항에 도착한 인도차이나인들은 주로 남부에 위치한 수용소에 감금된 채 10여년의 세월을 지내야만 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은 어떠했고, 그들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왜 프랑스는 인접해있는 다른 식민지가 아니라 이 머나먼 인도차이나에서 노동인력을 요구했는가? 인도차이나 노동자를 불러들인 것은 실질적인 필요성보다는 제국을 유지한다는 위신의 측면이, 강대국으로서의 자부심이라는 측면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해방 이후 프랑스가 이들의 송환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식민지 노동자들은 종전 후 격화된 인도차이나 독립운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는가?

인도차이나 노동자를 둘러싼 다양한 질문과 의문들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저서와 논문, 언론 자료 뿐 아니라 문서보관소에 있는 자료들을 참

8) 3 ky는 베트남어로 Bắc Kỳ(Tonkin), Trung Kỳ(Annam), Nam Kỳ(Cochinchine) 3 지역을 일컫는다.

9) 이 다큐멘터리는 아르테(Arte) 채널이 상영하기를 거부해 결국 위성채널인 플라넷(Planète)에서 방영되었다.

조했다. 특히 파리 근교 뱅센느(Vincennes)에 위치한 육군역사박물관(SHAT: Le Service historique de l'Armée de Terre)의 자료들과 국립문서고의 '해외영토' 분야, 인도차이나 관련 문서들(Archives Nationales, Section Outre-mer, Indochine-Nouveaux fonds)은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병사와 노동자들의 생활조건과 전쟁 중의 역할, 이들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인식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오랫동안 잊혀진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의 역사를 재구성해봄으로써, 역사의 잊혀진 자들에게 그 '이름'을 되돌려주고자 한다.

## II. 2차 대전과 프랑스 해외영토<sup>10)</sup>

프랑스인들... 너희들은 가장 위대한 프랑스의 일원이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프랑스보다 18배나 크고 7천만 명이 거주하는 해외영토를 너희들에게 선사했다.

이 제국은 유럽 중심국들의 경제규모를 합한 금액인 70억(프랑)의 가치를 매년 프랑스에 선사한다.

1939년으로 추정되는 선전포스터의 내용  
르클레르 장군 박물관(Musée du Général Leclerc) /  
장 몰랭 박물관(Musée Jean Moulin)

18세기에 획득한 여러 해외영토를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패배와 1815년 파리조약 이후 상당수의 식민지를 상실했다. 왕정복고와 7월 왕정 그리고 제2제정 시대를 거치면서 프랑스는 알제리(1830), 마이요트(Mayotte, 1841), 타히티(Tahiti, 1842), 누벨칼레도니(Nouvelle-Calédonie, 1843), 사이공(1859), 캄보디아(1863), 그리고 코친차이나(Cochinchine, 1867)를 차례로 점령했다. 제3공화국(1870-1940) 하에서 제국의 확장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 이었는데, 이 시기에 튀니지(1881)와 모로코(1912)가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고, 프랑스령 서아프리카(AOF: Afrique Occidentale française)와 적도 아프리카(AEF: Afrique Equatoriale française), 마다가스카르, 인도차이나,

10) 해외영토(Outre-Mer)라는 단어는 제국(Empire)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2차 대전 전후 한 시기부터 주로 사용되었다. 1889년에 식민지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식민지 학교(Ecole coloniale)'는 1934년에 이미 프랑스해외영토국립학교(Ecole nationale de la France d'Outre-Mer)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태평양의 섬들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1871년 이후 비스마르크의 외교체제에 의해 고립되고, 유럽 내에서 그 위상과 세력이 약화된 프랑스는 알자스-로렌의 탈환을 희망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열망을 희생시키며 두 번째 식민지 제국의 형성에 박차를 가했다. 1931년 파리 근교 뱅센느(Vincennes)에서 개최되어 193일 동안 8백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들인 세계식민지박람회(Exposition coloniale internationale de 1931)는 프랑스에게 강대국으로서의 확신을 강화시켜주었다. 이 시기 많은 프랑스인들의 상상 속에 해외영토는 강력한 국력의 상징이 되었다.

천3백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과 1억 천만 명의 인구(‘프랑스 본국’의 경우, 55만 평방킬로미터에 4천 2백만 인구)를 보유한 프랑스 제국은 2차 대전 직전 영국에 뒤이은 두 번째 식민지 대국이었다. 프랑스 제국은 전쟁 중에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프랑스에 공급했는데, 이미 1차 대전 당시 그 진가를 드러낸 뛰어난 군인들과 전장에 차출된 프랑스 노동자들을 대신할 노동인력을 제공했다.<sup>11)</sup>

프랑스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해외영토에 의존했다. 전쟁 직전 프랑스인들에게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한 비시(Vichy) 정부의 수반인 페탕(maréchal Pétain)은 제국의 수호를 천명했다. 비록 이탈리아 관리위원회(commissions de contrôle), 뒤이어 독일 관리위원회가 북아프리카에 진출해 있었지만, 1940년 6월 프랑스의 군사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독일과의 휴전은 페탕 정부의 권한 아래 식민지 제국 전체를 보존할 수 있게 했다. 자유프랑스(France Libre) 정부의 수반인 드골(Charles de Gaulle) 장군은 유명한 ‘1940년 6월 18일 연설’을 통해 ‘광활한 제국’의 존재를 강조하며, “프랑스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힘주어 말했다. 망명지 런던에서 항독운동을 전개한 드골에게도 해외영토는 핵심적인 사안이었다.<sup>12)</sup>

1939년 9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식민부(Ministère des Colonies)는 해외

- 11)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의 프랑스로의 이주는 1차 대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1914년에 프랑스 정부는 24만 명의 식민지 노동자, 그 중 4만 9천여 명의 인도차이나인들과 3만 7천여 명의 중국인들을 프랑스로 불러들였다. Jacques Frémeaux, *Les colonies dans la Grande Guerre. Combats et épreuves des peuples d'outre-mer*(Cahors: 14-18 Ed., 2006), pp. 72-75.
- 12) *L'outre-mer français dans la guerre 39-45*, Mémorial du Général Leclerc de Hauteclocque et de la Libération de Paris / Musée Jean Moulin, 4 novembre 2011-24 juin 2012, pp. 3-4.

영토에 전쟁에의 참여를 요구했다. 식민지들은 쌀, 유성물질, 커피와 전략적인 생산물(나무, 인산염, 고무, 니켈, 코발트), 그리고 ‘인력’을 제공해야 했다. 1차 대전 이래로 북아프리카와 인도차이나는 전쟁에 동원된 프랑스인들을 대신할 노동력의 보고(寶庫)로 인식되었다. 식민부 장관인 망델(Georges Mandel)은 특별히 인도차이나에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인도차이나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힘 전체를 동원한다. 즉 공격을 받을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본국의 전쟁 노력에 최상으로 기여한다.”<sup>13)</sup>

망델의 지시에 따라 ‘인도차이나 연합(Union indochinoise)’ 총독이자 코친차이나 총독으로 부임한 카트루(Georges Catroux) 장군은 지역적으로 징집을 실시했다. 카트루는 1939년 인도차이나 총독이 된 첫 번째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후 드골 장군 진영에 합류했고 알제(Alger)에서 장교를 지냈다. 그가 바로 이 지역의 고관들과 총독들에게 프랑스에 파견할 ‘미숙련노동자부대(contingents d'ouvriers non spécialisés)’를 편성하기 위해 인도차이나인들의 징집을 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자 했다. 초기에는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자들의 자발적인 입대만 요구되었으나, 이러한 방침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곧 대규모의 강제적인 징집이 실시되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도시와 각 지역의 행정관들(magistrats municipaux et locaux)이었다. 이들은 징집된 이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식민지 정부에 전달했다. 각 마을마다 적어도 18세 이상의 남성이 둘 이상 있는 가족에게는 한 명을 프랑스에 보내야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거부할 시에는 징집자의 아버지가 감옥에 가야했다.<sup>14)</sup>

카트루는 총 5만 명의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 25,000명은 톤킹에서, 17,000명은 안남에서, 5,000명은 코친차이나에서, 2,500명은 캄보디아에서 충원하고자 했다. 이러한 계획은 인도차이나인들이 승선할 선박의 부족과 프랑스에서의 전쟁의 빠른 종결로 달성되지 못했다. 안젤리(Pierre Angéli)의 박사논문에 따르면, 결국 6,900명이 톤킹에서, 10,850

13) Déclaration de Georges Mandel au général Catroux, in Georges Catroux, *Deux actes du drame indochinois: Hanoï, juin 1940, Dien Bien Phu, mars-mai 1954* (Paris: Plon, 1959), p. 17.

14) “Les travailleurs indochinois en France au cours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http://belleindochine.free.fr/ImmigresDeForce.htm>.

명은 안남에서, 그리고 소수의 캄보디아인들과 함께 단지 1,800명이 코친차이나에서 징집되었다고 한다.<sup>15)</sup>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징집의 불균형은 프랑스와 인도차이나 국가들 간의 ‘식민지적 관계’의 차이에 기인했다.

2차 대전 직전 ‘인도차이나 연합’은 중앙집권화된 행정체제와 관료, 군인, ‘식민자(colon)’라는 3개의 긴밀히 결합된 계층으로 구성된 식민지 사회가 지배하는 ‘잡다한 총체’였다. 역사가 드빌레르(Philippe Devillers)에 따르면 “식민지인이 좋아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싫어하지도 않았던 식민지 행정당국”<sup>16)</sup>은 인도차이나의 다양한 영토의 총독으로부터 지사에 이르는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관료들 중에 ‘원주민 보조자들(auxiliaires indigènes)’이 있었는데, 학자, 지주 부르주아지, 새로운 유력자 세대(nouvelle génération de notables)가 이에 해당했다. 식민지 사회와 대부분이 농촌 출신인 인도차이나 민중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들은 인도차이나인들의 징집을 담당한 자들이었다.<sup>17)</sup>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징집이 강요되었다면 모집인원의 10% 정도는 프랑스에 오기위해 자원했다. 이들은 인도차이나인 이주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주식민지가 아닌 관계로 인도차이나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의 수는 적었기에, 프랑스에게 중간자 역할의 식민지인 관리자의 도움은 필수적이었다. 이들 자발적인 참여자들은 모두 초등교육의 수준은 지녔고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통역자나 관리자를 자원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프랑스에겐 충성심의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원을 통한 프랑스로의 이주는 자원자들에게 그들의 교양수준을 높일 가능성과 사회적 지위 향상의 기회를 의미했다.<sup>18)</sup> 징집 캠페인은 8개월 동안

15) Pierre Angeli, *Les travailleurs indochinois en France pendant la seconde guerre mondiale, 1939-1945*(thèse de doctorat, faculté de droit de l'Université de Paris, 1946), p. 67. 프랑스해외영토국립학교(ENFOM: Ecole nationale de la France d'Outre-mer) 학생이었던 안젤리는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인도차이나 노동자 73중대 책임자로 근무했다.

16) Philippe Devillers, *Histoire du Vietnam de 1940 à 1952*(Paris: Ed. du Seuil, 1952), p. 67.

17) Liêm Khé TRAN-NU, “Les travailleurs indochinois en France de 1939 à 1948”, *Bulletin du Centre d'histoire de la France contemporaine*, no. 10(1989), p. 6.

18) Service historique de l'armée de terre(SHAT): 7 N 2471, Note État major de l'Armée(EMA) du 15 mars 1940.

지속되었고, 당시 모든 사회계층에게 적용되었다.

짧은 기간에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의 징집이 가능했던 것은 이처럼 ‘원주민 권력기관’의 협력 때문이었다. 식민지 정책 시행의 효율성은 일반 식민지인들과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소수의 지역 관료들의 ‘충성도’에 기원했다. 앞에서 언급한 지역에 따른 징집의 불균형 문제는 이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코친차이나는 변영의 요인이었던 그 노동력 전체를 필요로 했고, 그것과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곳의 경제적 발전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원주민 부르주아지의 탄생 또한 보게 되었는데, 이 계층은 프랑스 징용정책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었다. 코친차이나에서 징집이 인기 없었던 반면, 인구가 많고 훨씬 가난한 지역인 안남과 톤킹에서는 그것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프랑스는 그곳에서 지방정부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징집이 사회조직이나 전통적 사고와 긴밀히 연관된 매우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19)</sup>

1939년 10월부터 1940년 5월 사이에 인도차이나인들을 실어 날을 선박이 급하게 마련되었다. 강제징용자들은 체념한 듯 보였으며, 선체에서 이들의 사기는 높지 않았다. 형편없는 음식과 멀미, 구토물로 넘쳐나는 선창, 짐짝처럼 ‘적재된’ 이들은 조금의 불평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처벌을 받았다. “우리들은 3층으로 포개진 침대에서 잤다. (우리들을 관리하는) 간부들은 퇴역한 식민지부대 장교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우리들을 ‘열등인간’으로 취급했다.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에게 발길질과 손찌검을 서슴지 않았다.”<sup>20)</sup> 1939년 10월 20일부터 마지막 하선일자인 1940년 5월 14일까지 14척의 배가 19,362명의 인도차이나인을 프랑스로 실어 날랐다. 이는 분명 프랑스가 목표한 바에 이르지 못한 수치였다. 1940년 3월부터 원주민 노동국(MOI)은 원래 구상했던 인원 중에 3천 명이 부족하다고 기술했다.<sup>21)</sup> 드물지만 현지에서 그리고 수송 중에 몇몇 탈주행위가 있었고, 자살이나 자해의 시도도 있었다.<sup>22)</sup> 그렇

19) 비록 자원자 모집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강제 징집은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저항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Alexandre Briano, *Les travailleurs coloniaux. Les oubliés de l'histoire, 1916-1920 et 1939-1953*(Toulon: Les Presses du Midi, 2008), p. 62.

20) “Les travailleurs indochinois en France au cours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http://belleindochine.free.fr/ImmigresDeForce.htm>

21) SHAT: 7 N 2471, Note EMA du 15 mars 1940.

22) 이동 중에 86명이 소위 ‘분실’되었는데, 그중에는 23명의 사망자와 29명의 탈주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고 해서, 적어도 프랑스 측 자료에 따르면, 폭동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다. 악조건 속의 항해 후에 인도차이나인들이 도착한 곳은 프랑스 남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마르세유 항구였다.

### III. ‘원주민 노동국(MOI)’의 조직과 관리

파리 근교 뱅센느(Vincennes)에 위치한 국방부역사박물관(Le Service historique de la Défens, à Vincennes)에는 “전쟁 중의 노동자, 즉 1939년부터 1945년까지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관련 고문서 목록”<sup>23)</sup>이라는 제목의 N 계열(série N) 사료가 존재한다.<sup>24)</sup> 이 문서에 의하면 프랑스 남동쪽 끝의 바르(Var) 도의 툴롱(Toulon)시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 르 무리옹(Le Mourillon)에 노동자 수용소가 있었는데<sup>25)</sup>, 이는 1915년 당시 전쟁부 장관이었던 갈리에니(Joseph Gallieni) 장군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한다. 프랑스 남동쪽에 위치한 강제노동수용소는 2차 대전 시기 총 6개가 존재했는데<sup>26)</sup>, 그

23) “Etat des Archives du Service concernant: les travailleurs en temps de guerre ou les groupements de travailleurs étrangers en France de 1939 à 1945”.

24) 14 N-18 N; sous-série 5 N-7 N 2761; 27 N-34 N 378; un supplément de la série N(1872-1940). 국방부역사박물관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비시정부 문서인 série P(1940-1946)도 참조할 수 있다.

25) 2006년 8월 프로방스(Provence)의 한 조그만 마을의 벼룩시장에서 1940년 5월 1일 날짜가 적힌 “식민지 노동자 수용소 전체도면((Plan d'ensemble pour un campement de travailleurs coloniaux)”이라는 제목의 프랑스 해군기록보관소 자료가 발견됐다. ‘르 무리옹(Le Mourillon)의 식민지 노동자 수용소 도면(Campement pour travailleurs coloniaux au Mourillon - Marine nationale - Port de Toulon)’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문서에 대해서는 알렉상드르 브리아노(Alexandre Briano)의 저서 『식민지 노동자. 역사의 잊혀진 자들』에서 참조할 수 있다. Alexandre Briano, *Les travailleurs coloniaux. Les oubliés de l'histoire. 1916-1920 et 1939-1953*(Toulon: Les Presse du Midi, 2008).

26) 2차 대전 당시 식민지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한 강제노동수용소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위치해 있었다: 프레쥐스(Fréjus: département du Var en région Provence-Alpes-Côte d'Azur), 마자르그(Mazargues: un quartier de Marseille dans le 9<sup>e</sup> arrondissement), 르 무리옹(Le Mourillon: un quartier de l'Est de Toulon dans le département du Var en Provence-Alpes-Côte d'Azur), 생메다르양잘(Saint-Médard-en-Jalles: l'agglomération de Bordeaux dans le département de la Gironde en région Aquitaine), 소르그(Sorgues: département du Vaucluse en région Provence-Alpes-Côte d'Azur), 베니

곳은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식민지 부대의 임시숙소로 처음 만들어졌다. 1934년 12월 4일자 문서<sup>27)</sup>는 1차 대전 기간 동안 535,000명의 식민지 병사와 24만 명의 식민지 노동자들이 프랑스에 강제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939-1945년 전쟁 후 이 남동지역의 강제노동수용소는 지금까지 해병대의 훈련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식민지인의 강제노동수용소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바르 도 프레쥐스(Fréjus)에 위치한 르코크(Lecoq) 기지의 ‘해외영토부대 역사·연구센터(CHETOM: Centre d’histoire et d’études des troupes d’outre-mer)’에서 접할 수 있다. 수많은 자료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송환가능 식민지원주민군부대(GMICR: Groupement Militaire d’Indigènes Coloniaux Rapatriables)’라는 제목의 문서이다. 식민지원주민군부대는 2개의 식민지부대 임시수용소가 관리했던 식민지 보병들을 통합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1943년 2월 처음으로 설립된 이 부대는 161명의 장교와 325명의 하사관이 있는 보병대와 59명의 장교와 88명의 하사관이 있는 포병대를 포함한 72개 중대로 구성되었다. 행정은 57명의 고위급 간부와 52명의 하위간부가 있는 식민지 부대의 민간인 고용인에 의해 관리되었는데, 52명의 의사들도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일반병사는 1,757명의 아프리카인, 6,105명의 인도차이나인, 8,016명의 마다가스카르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28)</sup>

이 부대에 속해있는 식민지 군인들은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민간 고용인을 위해 일하거나 도로나 산림업무 등의 공공사업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프랑스 동남쪽 지중해변에 위치한 독일 제3제국의 군민(軍民) 엔지니어링 그룹(Third Reich civil and military engineering group)인 토트 조직(Organisation Todt)의 작업장에서 독일군들을 위해 일하기도 했다. 실제 독일의 점령자들은 프랑스 식민지 출신의 군인과 노동자들을 종종 전쟁포로로 인식했다. 식민지원주민군부대(GMICR)는 적극적인 저항활동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이 부대의 많은 식민지 출신 간부와 보병들은 그 지역의 항독저항단체와 접촉했다. 실제로

시웨(Vénissieux: banlieue sud de Lyon, dans le département du Rhône en région Rhône-Alpes).

27) SHAT: sous-série 7 N 2760.

28) Maurice Rives et Eric Deroo, *Les Linh Táp, histoire des militaires indochinois au service de la France*(Paris: Lavauzelle, 1999), pp. 27-35.

연합군의 상륙 등과 같이 전쟁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많은 ‘세네갈인’, 인도차이나인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인들이 프랑스 국내에서 독일 점령군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벌인 군사조직인 ‘국내 프랑스군(FFI: Forces françaises de l’intérieur)’에 합류했다.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의 경우, 이미 1차 대전기에 5만여 명이 병기창과 군수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프랑스로 이송되었다. 식민부와 ‘인도차이나노동자사무국(Contrôle général des travailleurs indochinois)’에 의해 관리되는 가운데 절반은 공장노동자와 토목공으로, 5천 명은 트럭운전사로, 8천 명은 간호병으로, 12,000명은 ‘행정노동요원(commis ouvriers d’administration)’으로 배치되었다. 중국인 노동자수보다 만여 명이 더 많았던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은 프랑스 전시산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29)</sup> 엄격한 규율에 의해 통제되는 가운데 그들의 집단적 행동은 가차 없이 진압되었다. 대부분은 1차 대전 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1차 대전과는 달리 식민지 노동자들을 불러들일 준비는 2차 대전 이전에도 이미 계획되었다. 1926년 노동부 장관의 훈령은 전쟁시 ‘원주민, 북아프리카인 그리고 식민지인 노동국(Main d’Oeuvre Indigène, Nord-Africaine et Coloniale)’의 창설을 예고했다.<sup>30)</sup> 식민지 노동자들을 징발하고, 프랑스로 오게 하고, 관리하는 일이 원주민 노동국(MOI)에 부과되었다. 1934년 7월 24일, 노동부 장관의 일반지침이 1926년 지침을 보완했다: “다양한 식민지에서 노동자들을 프랑스로 오게 하고 그들을 조직한다. 노동자들은 군단을 형성하고 지역감독이 배치된 기본조직인 중대로 편성된다.” 1938년 7월 2일 “전쟁시 국가 조직에 관한” 법령에 대한 가결은 전선의 프랑스 병사를 대체할 군인이 아닌 비전투원 노동자, 특히 식민지 노동자의 징발을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법령 14항). 1939년 4월, 2개의 조항이 징집과 식민지 노동자 조직과 관련한 이 법률규정을 보완했다. 노동부는 식민지 노동자 관련 업무를 담당했지만, 1938-1939년에 규정된 체제는 식민부, 노동부 그리고 국방부 사이의 협약에 의한 결과였다.<sup>31)</sup>

29) 1차 대전 기간 동안 프랑스로 징용으로 끌려온 식민지인들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알제리인 75,864명, 튀니지인 18,538명, 모로코인 35,010명, 인도차이나인 48,981명, 마다가스카르인 5,535명, 여기에 중국인 36,740명까지 포함해서 총 220,668명에 이른다.

Frémeaux, *Les colonies dans la Grande Guerre*, p. 63.

30) Instruction ministérielle du 9 octobre 1926.

31) Devilliers, *Histoire du Vietnam de 1940 à 1952*, p. 67.

이 같이 인도차이나 징용자들은 노동부에 속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독립적인 방식으로 기능한 원주민 노동국의 관리 하에 있었다. 민정기관(administration civil)으로서 원주민 노동국은 전쟁을 위해 징용된, 신분적으로는 민간인인, 식민지 노동자들을 관리했다. 원칙상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 즉 행정과 재정, 고용, 사회복지, 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인도차이나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창설된 경제기관이기도 했다.<sup>32)</sup>

원주민 노동국은 1923년 프랑스 이주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조직인 ‘이주 노동부(Main d’Oeuvre Immigrée)’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33)</sup> 어떤 이들은 원주민 노동국을 부적절하게 ‘인도차이나 노동국(Main d’Oeuvre Indochinoise)’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꼭 부적절하다고 볼 수 만은 없는 것이 원주민 노동국이 마다가스카르인과 북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을 송환할 때까지 관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적으로 인도차이나인들만 관리하는 기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주민 노동국은 후에 식민부 장관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는 1945년 중순부터 ‘인도차이나 노동자국(DTI: Direction des Travailleurs Indochinois)’으로 불리게 되었다.

노동력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9만 명의 인도차이나 노동자와 군인을 급작스럽게 프랑스로 이주시킨 1차 대전의 ‘즉흥적인 측면’을 거울삼아 이제 잘 준비된 각본 속에서 식민지에서의 징집은 진행되었다. 식민부 장관의 이름을 딴 망델안(Plan Mandel)은 1939년 전쟁을 위해 식민지 병사 2백만 명과 노동자 30만 명의 보충을 계획했다.<sup>34)</sup> 지리적 근접성으로 노동력의 중요한 공급지였던 알제리와 비시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인도차이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른 식민지들은, 적어도 노동자 문제에 관해서는, 이 조치에 반대했다. 1940년 4월, 총 41,000명의 식민지 보병 중 7천명의 인도차이나 병사가 프랑스에서 군복무를 했다. 같은 해 6월, 2만 명의 인도차이나 노동자

32) Archives Nationales, Section Outre-mer, Indochine - Nouveaux fonds(ANSOM, INF): Dossier 3314 Rapport de l’Inspection des colonies 8/11/1944.

33) 2차 대전기 ‘이주 노동부’는 1941년 말 프랑스 공산당의 지휘 하에 창설된 국내레지스탕스 조직인 ‘프랑스 의용군(Francis Tireurs et Partisans)’의 전위대 역할을 하기도 했다.

34) SHAT: 7 N 2471, Note de l’EMA 1<sup>er</sup> Bureau n° 675.

들이<sup>35)</sup> ‘미숙련노동자(ONS: Ouvriers non spécialisés)’의 자격으로 프랑스에 도착했다. 이 중 독일 등지로 떠난 5천 명을 제외한 14,479명이 프랑스에 있는 국방 관련 산업분야에 배속되었다.<sup>36)</sup>

노동자·군인(travailleurs·soldats)으로도 명명된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은 엄격한 군대 규율 하에 놓여 있었으며, 군인들처럼 중대(Compagnie)와 군단(Légion)으로 편성되었다. 중대는 이론상 24명의 노동자를 단위로 하는 10개의 부대(Groupe)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부대에는 안남인 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각 중대의 인원은 250명이었다. 처음에 프랑스는 가능한 한 같은 지역 출신의 인도차이나인들을 한 중대로 편성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주 초기에 이들 노동자들은 소위 ‘동향(同鄉) 중대(compagnie dite d’origine)’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이들은 프랑스 체류기간 내 내 같은 중대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프랑스의 필요에 따라 다른 중대로 이동해야만 했다. 군단은 여러 중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로데브(Lodève, HERAULT), 베르주락(Bergerac, DORDOGNE), 소르그(Sorgues, VAUCLUSE), 툴루즈(Toulouse, HAUTE-GARONNE), 그리고 마르세유(Marseille, BOUCHES-DU-RHONE)에 5개의 군단이 창설되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지휘하는 중대 근처로 그 소재지를 옮기게 되었다.<sup>37)</sup>

인도차이나는 북아프리카, 특히 알제리 같은 이주식민지가 아니었다. 여기서부터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경영 문제에 있어 취약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중간의 매개적인 식민지인 관료들 양성을 위해 프랑스는 식민지인 자원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인도차이나의 자원자들은 모두 적어도 초등교육 수준은 갖고 있었다. 통역자, 감독자 등 수많은 자격을 갖고 있는 그들은 프랑스에 충성된 존재라 여겨졌고, 그들 휘하에 20명 정도의 노동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처럼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의 관리 문제는 유럽인 관리자와 함께 원주민 관리자로 구성된 관리인 집단이 담당했다. 식민지 출신의 노동자들은 일시적으로 프랑스에 왔기 때문에 그들 관리자 역시 파견되었거나 임시로 채용된

35) 인도차이나 노동자들과 함께 식민지에서는 단 6천 명의 알제리 노동자들만이 프랑스에 징용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36) SHAT: 7 N 2471, Note de l’EMA 1<sup>er</sup> Bureau au ministère des Armées.

37) “LA M.O.I. et LA D.T.I.”, <http://www.travailleurs-indochinois.org/moi.htm>.

인물들이었다. 유럽인 관리자의 경우, 군인이나 은퇴한 혹은 대기발령 중인 공무원으로 구성된 임시 관리자와 군인 혹은 활동 중인 공무원으로 구성된 파견 관리자, 두 부류가 존재했다. 원주민 관리자의 경우, 첫 번째 부류는 인도차이나에서 충원한 상급 관리자인데, 그들은 프랑스어에 대한 지식과 유럽화된 의식과 생활방식으로 다른 식민지인들과는 구별되는 인물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들 중에서 뽑힌 ‘두 번째 지위의 관리자들(second niveau de surveillants)’을 두었다. 요약하면 중대의 관리 형태는 한편으로는 지휘관, 부지휘관, 일반 업무와 회계원 대리인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유럽인,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역자나 상급관리자의 자질을 갖춘 인도차이나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식민지 관리자 밑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관리자들(surveillants de 1<sup>ère</sup> et de 2<sup>ème</sup> classe)’이 존재했다.<sup>38)</sup>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되고, 군기관의 지배를 받지 않은 관리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원주민 노동국(MOI)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인, 특히 프랑스 관리인들은 자의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었다. 실제 유럽인 상급간부(premier encadrement européen)의 경우 몇몇 비난받을 태도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곤 했다. 식민지에서 자행되었던 학대와 가혹행위는 이들에 의해 프랑스 본국에서도 지속되었으며,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생필품과 의복이 유럽 관리인 가족들을 위해 혹은 암시장으로 빼돌려지는 행위가 발생했다. 옛 징용자들은 하나같이 프랑스 관리자들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태도를 고발했다. 수없이 많이 적발된 이러한 사례들은 확실히 중대 전체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식민지 노동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황에 따른 조처이긴 하지만, 1943년부터 유럽인 간부 인원수를 제한했으며, 그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들이 행해졌다. 몇 달 사이에 유럽인 간부의 3분의 1이 식민지 행정관료를 양성하는 ‘식민지 학교(Ecole Coloniale)’ 출신의 젊은 관리자들이나 프랑스에 있는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확실한 인물들’로 대체되었다.<sup>39)</sup> 해방 후 식민부 감독관(inspecteurs du ministère

38) *Ibid.*

39) 이 모든 조처는 식민부 인사부장(Directeur du Personnel au Ministère des Colonies)인 앙리 모(Henri Maux)가 주도했다. 식민지 관료인 앙리 모는 1927년 인도차이나에서 토목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비시정부 하에서 식민부 뿐 아니라 노동부 소속 관료로도 활동했다. 비시정부의 수반인 페탱에게 충성의 맹세를 거부한 드문 관료 중 하

des Colonies)이 작성한 한 보고서는 식민지 노동국을 신랄히 비판했으며, 그 결과 원주민 노동국 책임자들에 대한 중요한 파면이 행해졌다. 대략 90명의 관리자들이 해고되었고, 거기에 더하여 같은 수의 사람들이 자진 사퇴하였다.<sup>40)</sup>

#### IV. 인도차이나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인식

전선으로 떠난 프랑스 노동자들을 대신해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에서 일할 목적으로 프랑스에 도착한 인도차이나인들 대부분은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다. 역사가 달로즈(Jacques Dalloz)가 강조했듯이 인도차이나의 노동자 계급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인도차이나 인구의 5%에 해당하는 2십만 명에 불과했다. 반면에 베트남인들의 90%는 농촌에서 살았다.<sup>41)</sup> 주로 안남 북부와 톤킨 출신인 이들은 프랑스어를 전혀 몰랐으며, 앞으로 경험할 공장에서의 노동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식민지인들은 프랑스 전역으로 흩어져 그들이 일하게 될 장소 근처에 임시로 마련된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었다. 대부분의 인도차이나인들은 그들을 위해 마련된 마자르그(Mazargues), 소르그(Sorgues), 베니시외(Véniessieux) 등 프랑스 남쪽에 위치한 거대한 수용소에 편성되었다. 그들은 수용소 철책과 익숙지 않은 언어로 인해 프랑스인들과 분리된 가운데 그들끼리 생활해야만 했다. 이곳에서 그들은 열악한 생활조건 뿐 아니라 수용소 간부에게 받는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영위했다. 민간신분으로 채용되었지만 군대식으로 관리되었던 베트남인들은 그들을 지휘하는 장교들에 의해 완전히 예속되었다. 음식은 부족했고 간부들에 의해 자주 유용되었다.

---

나이며,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던 앙리 모는 1950년 비행기 사고로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앙리 모에 관해서는 그의 딸인 모-로베르(Antoinette Maux-Robert)의 저서, *Le Dragon de l'Est. Henri Maux dans la Chine en guerre, 1937-1939*(Paris: Ed. Champflour, 1999)와 *Henri Maux. En mission dans le tumulte asiatique 1945-1950*(Paris: Editions de l'Ouest, 2011)을 참조할 수 있다.

40) Liêm Khé TRAN-NU, "Les travailleurs indochinois en France de 1939 à 1948", p. 11.

41) Jacques Dalloz, *La guerre d'Indochine, 1945-1954*(Paris: Le Seuil, 1987), pp. 22, 24.

증언에 따르면 식민지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과도한 노동량으로 특히 힘들어했다. 가장 많은 생산량을 요구했던 1943년과 1944년에 이들의 사망자 수치는 가장 높았는데, 1942년에 2.5였던 사망률은 1943년에 18, 1944년에 17.5를 기록했다. 이 시기동안 물질적인 어려움은 절정에 달했다. 프랑스인 전체에 영향을 미친 물자공급의 어려움이라는 일반적 상황은 징용자들에게 훨씬 더 큰 시련으로 다가왔다. 징용자들은 열악한 숙소, 의복의 부족, 그리고 몇몇 간부들의 개인적인 유용으로 인한 식량의 부족으로 고통을 당했다.<sup>42)</sup> 이 기간 동안 징용자들은 자체적으로 물자를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수용소 근처에서 도둑질은 빈번하게 발생했다. 1944년 9월과 10월, 15건의 유죄판결 중에서 14건은 절도, 한 건은 빵 배급표 압거래에 관한 것이었다.<sup>43)</sup>

문서상으로 원주민 노동국(MOI)은 징용자들의 온전한 부양과 봉급 지급을 약속해야 했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계약조건 명세서의 조항들을 수락하고 노동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sup>44)</sup> 징용된 이들의 급료와 수당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출발 수당, 임금, 송환시 여행 수당, 그리고 징용해제 수당 등이 그것이었다. 기혼자의 경우 그 부인은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받았으며, 프랑스 체류기간 동안 이들 노동자들은 귀환시 돌려받을 '피아스트르 계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산해도 프랑스 노동자 임금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sup>45)</sup> 비록 음식과 의복, 임시 숙소가 제공되었지만, 식민지 노동자들은 비시정부뿐 아니라 자유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도 조직적으로 착취되었다. 그 희생의 대가로 몇몇 프랑스 기업들은 식민지 시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

1939년 말부터 1940년 6월까지, 미숙련노동자들(ONS)로 분류된 이들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했던 곳은 화약 제조소였다.<sup>46)</sup> 프랑스 정부는

42) ANSOM, INF: 397/3314 Note du ministère des Colonies, 22 novembre 1944.

43) ANSOM, INF: 212/1594 Rapports du chef de service de la M.O.I. au directeur des Affaires politiques du ministère des Colonies du 23 octobre et 23 novembre 1944.

44) 1939년 12월부터 1944년 10월 사이에 6개의 계약조건 명세서가 작성되었다.

45) ANSOM, INF: D 3314 Note du Ministère des Colonies sur la M.O.I. du 2 décembre 1944.

46) 1,797명이 부르쥬(Bourges), 1,798명이 앙굴렘(Angoulême), 1,634명이 베르주락, 2,327명이 보르도(Bordeaux), 1,490명이 소르그(Sorgues), 1,332명이 툴루즈(Toulouse)의 화약

‘식민지 노동자들’이 아니라 ‘식민지 농민들’을 채용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들이 전문노동직에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버렸다. 이처럼 프랑스 노동인구의 5% 정도를 차지했던 베트남 노동자들은 특별한 훈련을 요하지 않은, 그렇지만 매우 위험한 화약 제조소, 탄약통 제조소, 무기 제조소 등의 화약관리 업무에 활용되었다. 반복적인 작업의 성격상 기술적인 훈련은 필요치 않았으며 노동자들은 빠르게 일에 적응해갔다.

그러나 1940년의 패배와 휴전은 군수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으며,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을 실업상태에 처하게 했다. 1940년 여름 이후 이들 미숙련노동자들은 농사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실직의 시간을 보내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이들 노동자들을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1941년 3개 중대는 도르도뉴(Dordogne) 지역에 위치한 살라(Sarlat) 근처의 뵈느(Beunes) 계곡으로 대마(大麻)와 유채(油菜) 경작에 사용될 수백 헥타르의 야채재배지 배수사업을 위해 동원되었다. 또 다른 이들은 1946년 2십만 톤의 생산량을 보인 카마르그(Camargues)에 위치한 살랭 드 지로(Salin de Giraud)의 염전에 고용되었다.<sup>47)</sup>

프랑스에서 지낸 기간 동안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의 10%만이 프랑스에서 직업교육을 받았다. 그것은 주로 농업과 산업 분야와 관련된 것이었다. 교육을 이수하기에 적합한 이들은 선발시험을 치른 후에 결정되었다. 엄선된 이들은 대부분 관련 정부 부서에 속한 공공양성소(établissement d'apprentissage public)에 배치되었다. 이곳에서 프레이즈반 직공, 선반공, 기계 조립공, 전기공 등과 같은 공작기계와 관련된 노동자들이 배출되었다. 자격을 갖추자마자 그들 대부분은 직업을 찾은 후에 징용을 해제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sup>48)</sup> 직업교육은 어떤 이들에게 프랑스에서 노동계로 진입하는 수단이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귀환시 확실한 사회적 지위상승을 의미했다. 이들 모두에게 그것은 조국을 떠나 전쟁에 기여함으로써 매우 비싼 대가를 치렀던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했다. 산업교육을 식민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보았던 프랑스 노동부의 생각과는 반대로 교육받은 이들의 상당수는

제조소에 배속되었다. 이 외에도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은 염전, 산림지대, 농업, 종이공장, 전기공학과 화학 관련 공장 등에서 일했다.

47) “Les travailleurs indochinois en France au cours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http://belleindochine.free.fr/ImmigresDeForce.htm>.

48) Briano, *Les travailleurs coloniaux*, p. 119.

프랑스에 정착했다.

역설적인 것은 프랑스가 치르는 전쟁을 위해 프랑스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나치 독일을 위해 무기를 생산하고, 요새를 건설하는데 동원되었다는 사실이다. 1944년 1월, 인도차이나 미숙련노동자 중 27%는 독일 점령자들을 위해 일했다. 이들 식민지인들과 독일 점령자 사이의 관계는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에르 뎀(P. Daum)이 수집한 증언들에 따르면 독일인들과 함께 하는 삶의 조건은 프랑스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보다 확실히 나았다고 한다.<sup>49)</sup>

그렇다면 프랑스인들은 이들 아시아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1939년 11월부터 원주민 노동국(MOI)은 식민지 노동자 활용과 관련한 공문을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식민지인들과 유럽인들이 ‘호환’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원주민 노동자들은 유럽 노동자들을 대체할 수 없다”<sup>50)</sup>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이 문서는 업무를 제시간에 끝내는 인도차이나인들의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들의 지능이 깨어있다고 말하며, 민첩하고 유순하며 추위엔 약하지만 잘 적응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평가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위에 인용한 보고서에서도 프랑스인과 인도차이나인 사이의 근본적인 인종적 차이를 강조했듯이, 멀리 인도차이나에서 데려온 노동자들은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프랑스에게는 실망스러웠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툴루즈(Toulouse)에 위치한 17관구(17<sup>e</sup> région militaire)의 한 보고서는 “충원된 이들은 인도차이나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이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 대부분은 ‘원주민 사회의 쓰레기들(rebuts de la société indigène)’이었다”<sup>51)</sup>고 기록했다.

프랑스인들에게 인도차이나인들은 한편으론 위험한 ‘식인종’으로, 다른 한편으론 순진한 어린아이로 묘사되었지만, 항상 위선자 혹은 잠재적인 도둑으로 인식되었다. 프랑스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인도차이나가 문화적으로 프랑스와 상이하고, 인도차이나인들은 아이처럼 성숙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특별한 감시를 요한다고 했다. 이 같은 고정관념은 식민주의자들의 기획과 원주민 노동국이 식민지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처우를 정당화했다. 몽펠리에

49) Daum, *Immigrés de force*, pp. 123-128.

50) SHAT: 7 N 2741 Circulaire du M.O.I. du 20/11/1939.

51) ANSOM, INF: Dossier 1333 Rapport du lieutenant-colonel Boisseau sur l'état d'esprit des Indochinois de la 17<sup>e</sup> région, 29 mars 1945.

(Montpellier) 지역 신문인 『레코 뒤 비두홀르』(*L'Echo du Vidourle*)에서 기술된 내용은 인도차이나인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들의 체류는 고양이와 개에게 특별히 환영받지 못했다. 이 시기에 식량공급은 불충분했기에 고양이와 개는 종종 아시아인들의 식탐의 희생자가 되었다.”<sup>52)</sup>

이렇듯 ‘식민지 본국’을 수호하기 위해 건너온 “프랑스의 보호 받는 자들”은 이방인으로, 야만인으로 지내야만 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노동계층과 프랑스 여성들의 태도는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인도차이나인들에 대한 관리와 감시는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거의 불가능하게 했으며, 언어의 장벽, 빠른 송환에 대한 기대는 인도차이나인들로 하여금 프랑스인들과의 만남과 교류에 무관심하게 했다. 비록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인도차이나 관리자들에게 프랑스인들과의 관계는 제한되었지만, 이민자 노동자와 프랑스 여성들과의 관계는 ‘괜찮은(cordial)’ 편이었다. 인도차이나인들은 종종 세밀함을 요하는 작업 공장에 고용되었는데, 그곳에는 전쟁으로 인해 동원된 프랑스 여성 노동자들 다수가 근무하고 있었다. 고용주들은 인도차이나인들처럼 여성들도 이런 종류의 일에 적합하고, 유순하며, 조용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인도차이나인들과 프랑스 여성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조성해주었다. 실제로 이들 사이에는 원주민 노동국의 수많은 경고, 예를 들어 “인도차이나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젊은 여성들은 끔찍한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sup>53)</sup>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다.

결국 프랑스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천여 명의 인도차이나인들 가운데 다수가 프랑스 여성과 결혼했다. 여성은, 유일하진 않지만,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편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인종과 국적이 다른 사람들 간의 결혼은 징용자들의 소수, 대부분 인도차이나 ‘관리자들’의 경우에만 해당됐고, 다른 식민지 노동자들의 시선은 친구와 가족이 있는 인도차이나를 향해 있었다.

원주민 노동국(MOI)에 대한 점증하는 불신과 열악한 생활 조건으로 인해 1944년부터 소요의 기운이 점차적으로 모든 수용소에 감돌았다. 프랑스의 해

52) *Echo du Vidourle*, no. 62(11-17 mars 1972).

53) *L'Avenir agathois*, 29 mars 1941.

방과 종전은 보다 나은 삶과 신속한 귀환에 대한 요구를 조장했다. 이러한 ‘운동’의 전위에서 우리는 인도차이나 ‘관리인들(cadres)’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지위상승의 희망과 서구에 대한 매력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건너온 이들은 프랑스 당국의 철저한 감시 하에서 하부직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었다. 프랑스 당국에 대항하여 식민지 노동자들 사이에 계급을 초월한 공동체적 연대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원주민 노동국으로 상징되는 식민지 질서와의 단절이 발생하였다. 종전 후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학생 공동체(communauté étudiante indochinoise)와의 만남은 권리요구와 자체조직(auto-organisation)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이미 전쟁 전에 프랑스에서 조직된 이 학생 공동체는 프랑스에서 획득한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공동체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대부분 정치화되었고 확고한 민족주의자이며 마르크스주의자인 인도차이나 학생과 지식인은 인도차이나 관리자들을 그들 사상의 전파와 징용자들의 정치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유용한 중계자로 파악했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무엇보다도 단호한 반식민주의적 신념으로 연합할 수 있었다. 수용소에 고립되어 있던 노동자들은 이 연합체로부터 첫 번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도움은 프랑스 해방 후 더욱 강력해진 프랑스 공산당(PCF)과 노동총연맹(CGT)으로 대변되는 정치, 노동조합 조직으로부터 왔다.<sup>54)</sup>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베트남(Vietminh)처럼 징용자들은 원주민 노동국으로부터 그들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에 참여했다. 그들은 수용소 내에서 조직을 정비했고, 1944년 12월 15, 16, 17일 아비뇽(Avignon)에서 개최되어 프랑스 거주 인도차이나인 대표자 백여 명이 참석한 프랑스 인도차이나인 대회(Congrès des Indochinois de France)에서 그들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류했다. 이 대회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지를 합법적으로 대표하는 유일한 조직으로 지목한 인도차이나 대표단 구성회의였다.<sup>55)</sup> 이 대회에서 인도차이나 대표단은 프랑스와의 동등한 권리, 특별히 노동조합의 권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드골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했다.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은 점점 더 공개적으로 그들의 반식민주의적 감정을 표출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주동자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54) Liêm Khé TRAN-NU, “Les travailleurs indochinois en France de 1939 à 1948”, p. 15.

55) Manifeste du Congrès national des Indochinois d’Avignon, 17 décembre 1944.

식민지적 굴레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열망과 프랑스인과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주장은 1943년부터 감지되었지만, 징용자들 다수가 레지스탕스 운동 대열에 합류한 1944년 초부터 분명해졌다. 권리의 평등 요구는 특히 직업교육과 노조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연합되었다. 노조와 관련해서 부쉬뒤론(Bouches-du-Rhône)과 보클뤼즈(Vaucluse)에서 2,500명의 징용자들이 1944년 11월부터 노동조합원이 된 것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노동총연맹에 가입했다.<sup>56)</sup> 인도차이나 노동자, 프랑스공산당, 노동총연맹의 관계는 베트남에서의 '8월 혁명' 이후 프랑스 공산당의 정치노선이 프랑스 임시정부의 인도차이나 정책과 달라지게 된 1945년 가을부터 강화되었다.<sup>57)</sup> 프랑스 공산당은 당시 인도차이나에 대한 재정복 전쟁을 비난했고, 베트민과의 협상을 요구했다. 프랑스-인도차이나 모임과 선전활동은 프랑스에서 증가했다. 프랑스 공산당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영역에서 트로츠키주의자들(Trotskistes)과 경쟁했는데, 한 동안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제4인터내셔널 조직인 인도차이나 볼셰비키 레닌리스트 그룹(Groupe Bolchevique Léniniste Indochinois)이 1943년 말 이래로 시행한 노력 덕택에 인도차이나 징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다.<sup>58)</sup>

프랑스 노조와 다양한 정치조직, 그리고 베트민과의 연계 하에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은 베트남의 독립을 위한 저항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프랑스 원정군이 인도차이나에 파견될 때마다, 프랑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할 때마다 파업은 증가했다.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은 모임과 시위를 통해 프랑스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수용소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프랑스를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 그 결과 식민지에서 온 노동자들은 프랑스와 식민지에서 점점 더 기피인물이 되어갔다.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에게 '프랑스 해방'과 전쟁 종결은 '압제'의 끝을, 그리

56) *Ibid.*

57)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Alain Ruscio, *Les communistes français et la guerre d'Indochine, 1944-1954*(Paris: L'Harmattan, 1985)를 참조할 수 있다.

58)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의 활동과 영향에 대해서는 Benjamin Stora, "Les travailleurs indochinois en France pendant la seconde guerre mondiale", *Les Cahiers du CERMTRI(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s sur les Mouvements Trotskyste et Révolutionnaires internationaux)*, no. 28(avril 1983)을 참조할 수 있다.

고 고국으로의 귀환의 가능성을 의미했다. 그러나 비시 프랑스 정부는 이들의 귀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종전 직후 단 4,426명만이 귀환했는데, 그들 중 다수는 환자였고 부상자들이었다. 몇몇은 반프랑스 주동자로 추방되었다.

식민지인들의 귀환은 1940년 6월의 패배와 이에 따른 휴전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휴전 후 프랑스가 식민지 노동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자동적으로 끝났기에 그들 나라로의 귀환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모든 북아프리카인들은 신속하게 본국으로 송환되었지만, 프랑스에 남아있는 15,000여 명의 인도차이나인들 중 4,400명만이 1941년에 그들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사실 영국이 극동으로 향하는 모든 해상로를 봉쇄했기에 나머지 만 명은 프랑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전쟁 종결 후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년을, 어떤 이들은 7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 몇몇은 프랑스원정군(CEFEO: le Corps Expéditionnaires Français en Extrême Orient)에 합류할 결심을 했는데, 이들의 숫자는 1,500명에 이른다. 이들의 목적 역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용소에 머물렀다.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서 프랑스어가 더 나아지지도 않은 가운데, 숙소와 음식이 그럭저럭 보장되는 수용소를 떠나 '미지의 프랑스로의 모험'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심리적·감정적·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10년 동안의 프랑스 체류 후 인도차이나로의 귀환은 시끌벅적한 요란함이나 영광도 없는 두려움과 치욕 속에서 행해졌다. 더 끔찍한 것은 인도차이나인들의 귀환이 프랑스가 원치 않은 자들에 대한 정치적 추방의 형태를 띠었다는 점이었다. 실제 1946년부터 내무부 장관과 징용자들이 체류하는 도의 도지사들은 존재 자체를 공공질서의 위협으로 간주한 징용자들의 송환을 재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이후로 인도차이나인들은 수용소 밖으로의 출입이 제한되었고, 베트남 독립을 위한 선전활동은 금지되었다. 정부 당국의 행동지침은 인도차이나 정책으로 채택된 일반적인 원칙과 다르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1945년 10월 18일 법령은 비밀리에 활동을 계속해온 인도차이나 대표단(Délégation générale des Indochinois)의 해산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일련의 체포를 감행했다. 대표단 위원들, 그 중 책임자인 잔둡짜오(Tran Duc Thao)는 형법 80조, 즉 “프랑스 영토와 프랑스 정부에 대한 침해죄”로 체포

되었다.<sup>59)</sup> 프랑스 행정당국은 저항운동을 제거하고자 했지만 이는 수용소에 긴장관계를 부추길 뿐이었다. 주동자와 선동자의 격리정책은 1948년 대규모 체포와 ‘정부 전복 행위자’에 대한 구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1948년 2월 120명의 식민지 노동자들이 체포되었고, 로에가론(Loi-et-Garonne)에 위치한 비아스(Bias) 수용소로 이송 직후, 인도차이나로 향하는 선박에 태워 보내졌다. 같은 해 7월, 같은 조처가 300명의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행해졌다. 1948년부터 인도차이나인들의 저항운동은 프랑스의 강경한 탄압과 송환의 결과 힘을 잃게 되었다. 송환은 1952년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처음 프랑스에 도착한 2만 명의 징용자들 중 천여 명이 최종적으로 프랑스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 V. 맺음말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이 2차 대전기 프랑스에 기여한 가장 두드러진 업적 중 하나는 카마르그(Camargue) 지역에서의 쌀 생산일 것이다. 오늘날 알고 있는 카마르그 쌀(riz de Camargue)은 소수의 사람들, 즉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에 의해 1941년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시정부의 목표 중 하나는 프랑스를 위협하는 식량부족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재배의 의무가 부과되었고, 토지와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이 경작자들에게 대여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일종의 ‘골드러시(ruée vers l’or)’였으며, 쌀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조상 전래의 지식 덕택에 베트남인들은 양질의 쌀을 카마르그에서 재배 하는데 성공했고, 그것은 프랑스 경제와 론(Rhône)강 삼각주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카마르그에 위치한 아를르(Arles)와 모든 삼각주 지역에서 쌀은 황소와 함께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정체성의 요소로 추앙받는다. 이 ‘하얀 황금(or blanc)’을 생산해낸 주역인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은 이제 그들이 기여한 업적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받고 예우 받아야 할 것이다.

이주와 이주민, 그리고 이주 노동자 문제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가속화하는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물결 속에서 한국사회로 유입되는 이주자의 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미 200만

59) ANSOM, INF: Dossier 979.

에 육박한 가운데, 이주와 이주자 문제가 문화 간의 교류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불안 요인이라는 주장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유럽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새로운 인종주의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종교·문화적 갈등과 대립이 이주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미 이민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심은 이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통합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수준의 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주자 문제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이 입안, 시행되고 있음에도 갈등과 대립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 현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서양의 이주민 문제, 특별히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노동자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주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성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원래 ‘이주하는 인간(Homo Migrans)’이었다. 정주(定住)하는 인간의 눈이 아닌 이주하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인간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차별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오늘날의 이민문제가 역사적으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작은 시도이다.

마지막으로 글을 맺으며 기억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식민지 노동자 관련 저서를 준비하며 옛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대사관에 자문을 구한 프랑스 학자 브리아노(A. Briano)에게 주 프랑스 캄보디아 대사(Uch Kiman)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 자의적 혹은 강제적으로 가족과 오랫동안 이별하고, 침묵 속에서 보낸 그들의 프랑스 체류에 관한 당신의 이야기에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은 중요치 않고 노동력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던 잘 조직된 유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이름은 이러한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등장했는데, 그들은 분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생존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전후의 시기는 이러한 상황들을 알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고국으로 송환되는 행운을 지닌 이들은 프랑스에서의 악몽에 대한 기억의 의무를 수

행할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불행하게도 어떠한 사후의 보상과 인정도 사라진 사랑하는 이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sup>60)</sup>

존재하는 몇몇 문서와 구술 자료에 근거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추적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이들 인도차이나 징용자들에 대한 인정과 영예가 될 것이다. 우리들의 기억의 의무가 그들을 명예롭게 할 것이다.

(연세대 사학과)

〈투고일자 2014. 1. 26 심사일자 2014. 2. 14 게재확정일자 2014. 2. 17〉

**주제어** : 제2차 세계대전(The Second World War), 인도차이나 노동자(Indochina Workers), 강제 이주(Forced Migration), 강제 노동(Forced Labor), 원주민 노동국(MOI, Native Labour Bureau)

60) Alexandre Briano, *Les travailleurs coloniaux. Les oubliés de l'histoire, 1916-1920 et 1939-1953*(Toulon: Les Presses du Midi, 2008), p. 37.

## 〈국문초록〉

### 제2차 세계대전과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노동자: 강제 이주에서 강제 노동으로

이 재 원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노동자 관련 역사는 오랫동안 잊혀진 주제였다. 2차대전기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킨 반면, 프랑스에 끌려간 인도차이나 징용노동자들의 운명은 현대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1939년부터 1940년 6월 독일에 패배하기 전까지 9천여 명의 인도차이나인들이 보병으로 프랑스 군대에 징집되었으며, 2만 명 이상의 베트남인들이 자발적 혹은 강제로 프랑스에 노동자로 오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해방 후에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지만, 14,000명 이상의 인도차이나인들은 전쟁기간 동안 비시(Vichy) 정부와 독일인을 위해 혹은 프랑스 민간기업을 위해 노동을 강요당하며 프랑스에 머물러야만 했다. 엄격한 군대규율의 통제하에 지내며, 수용소에 감금되어 부족한 식사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가운데, 인도차이나 노동자들은 종종 폭력과 감금의 희생자가 되었고, 다수가 폐결핵을 앓았으며, 1천여 명이 넘는 이들은 고향땅을 밟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만 했다. 역사가 망스롱(Gilles Manceron)이 언급했듯이 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드러내는 것은 ‘참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Résumé〉****La Seconde Guerre mondiale et les travailleurs indochinois en France: de la migration forcée au travail forcé**

Jae-Won LEE

L'histoire concernant des travailleurs indochinois en France est un sujet largement oublié. Alors que l'utilisation par le gouvernement japonais pendant la Seconde Guerre mondiale de travailleurs forcés coréens et chinois fait l'objet d'une interpellation internationale, le sort des travailleurs indochinois utilisés en France à la même époque demeure un angle aveugle de la conscience contemporaine. En 1939 et dans les mois qui ont précédé la défaite de 1940, outre les quelque 9,000 Indochinois enrôlés comme tirailleurs dans l'armée française, ce sont plus de 20,000 Vietnamiens qui furent réquisitionnés de gré ou de force et amenés en France comme travailleurs. Le rapatriement d'une partie seulement de ces hommes eut lieu dans l'année qui a suivi l'armistice, mais plus de 14,000 restèrent en France pendant toute la durée de la guerre, obligés à travailler pour le compte de Vichy, des Allemands ou d'entreprises privées françaises. Soumis à une discipline militaire stricte, logés dans des camps, mal nourris et surexploités, souvent victimes de brutalités et emprisonnés à la moindre incartade, beaucoup furent atteints de tuberculose pulmonaire et plus de 1,000 moururent avant la libération de la France. Comme l'historien Gilles Manceron précise, remettre au jour cet épisode méconnu, qu'il s'agit pas de 'repentance', mais de la reconnaissance des réalités historiques.

**〈Summary〉****The Second World War and the Indochina Workers in France:  
from Forced Migration to Forced Labor**

Jae-Won LEE

The history concerning the Indochina workers in France has been a dismissed subject for a long time. While the problem of Korean and Chinese workers forced by Japanese government during World War II had repercussions all over the world, the destiny of Indochina draftees did not draw attention of contemporaries. From 1939 until June 1940, when France was defeated by German, more than 9 thousand Indochinese were drafted to the infantry and more than 20 thousand Vietnamese came to France as laborer voluntarily or by force. Some of them could returned to their country after liberation, but more than 14 thousand Indochinese had to stay in France, forced to work for Vichy, or for French private enterprises. Under the strict military discipline, held in camps with poor nutrition and overwork, Indochinese laborers often became victims of violence, imprisonment, and tuberculosis, more than thousand of whom died before the French liberation. As the historian Gilles Manceron referred, revealing this unknown event is not about the 'repentance' but about the recognition of historic reality.